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앙골라

Republic of Angola

2019년3월18일 | 책임조사역(G3) 윤서희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247천 km ² 	인구 29백만 명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친서방 
GDP 1,145억 달러 	1인당GDP 3,924달러 	통화단위 Kwanza (Kz) 	환율(U\$기준) 252.86 

-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앙골라는 한반도의 5.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콩고민주공화국(북), 잠비아(동), 나미비아(남)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앙골라는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였으나, 이후 앙골라인민해방운동(MPLA)과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UNITA) 단체 간에 권력 쟁탈을 위한 내전이 27년 간 지속됨. 2002년 UNITA의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내전은 종식되었으며, 현재 MPLA 및 UNITA는 각각 여당과 제1야당으로 활동하고 있음.
- MPLA를 이끈 Dos Santos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이어(1979~2017년), 2017년 9월 MPLA의 Joao Lourenco(전 국방장관)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등 MPLA가 수십년 간 집권여당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음.
- 앙골라의 경제규모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은 제3위이나,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저유가 상황에서는 경제가 위축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님.
- 앙골라 정부는 비석유 부문 육성, 빈곤 퇴치, 교육·의료 서비스 확대, 인프라 확충 등 경제개혁을 위한 중기 국가개발계획 'National Development Plan for 2018-2022'을 수립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 6 수교 (북한과는 1976. 4. 15)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정('93),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00), 외교관 및 관용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12), 한-앙골라 보훈협력 양해각서('16), 한-앙골라 국방협력 양해각서('17)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출	552,525	338,844	180,447	철강제품, 자동차류, 선박
수입	173,858	197,956	184,524	석유, 기계류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말 누계, 총투자기준) 17건, 87,422천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4.8	0.9	-2.6	-2.5	-0.1
소비자물가상승률	7.3	9.2	30.7	29.8	20.5
재정수지/GDP	-5.7	-2.9	-4.5	-6.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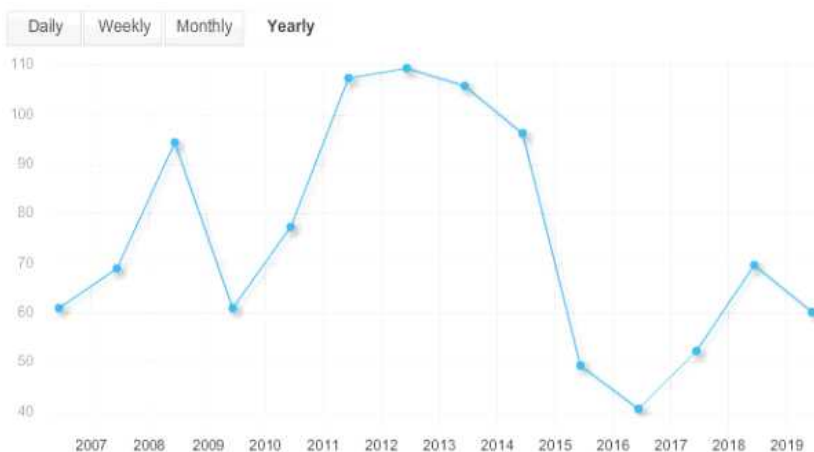
자료: IMF, EU

국제유가 상승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 및 재정수지 회복

- 앙골라는 아프리카 대륙 2위(2017년)의 산유국으로, 석유 부문이 GDP의 20%, 수출의 95%,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여, 국제유가 등락이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 2014년 평균 배럴당 96.29달러 수준이었던 국제유가가 2015년 49.49달러, 2016년도 40.76달러 수준으로 계속 하락함에 따라 앙골라 경제는 2016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하였음. 2016년 12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를 기점으로 유가가 반등함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회복세를 보임.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에 힘입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0.8% 수준으로 전년(-6.1%) 대비 현저히 개선되었음.

연평균 국제유가 추이

단위 : 달러/배럴



2019	60.29
2018	69.78
2017	52.43
2016	40.76
2015	49.49
2014	96.29
2013	105.87
2012	109.45
2011	107.46
2010	77.45
2009	61.06
2008	94.45
2007	69.08

* 자료: OPEC

국내경제

산유국 감산 합의 이행에 따라 원유생산량은 감소

- 2016년 12월 OPEC 회원·비회원 산유국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한 OPEC Plus의 감산 합의에 따라 OPEC 회원국인 앙골라는 합의 시행일(2017년 1월 1일)부터 일일 원유생산량 상한선을 2016년 10월 대비 7.8만 배럴 감축한 167.3만 배럴로 낮추었음.
- 당초 합의기간은 2017년 6월 말까지였으나, 수차례 연장을 통해 전 세계 원유생산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OPEC Plus가 2019년 6월 말까지 추가감산에 합의에 따라 앙골라는 일일평균 140만 배럴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됨.

원유 생산량 추이

단위 : 만 배럴/일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앙골라	171.8	163.4	150.6
OPEC 전체	3,285.1	3,201.3	3,185.5

* 자료: OPEC

관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유지

- 기존 고정환율제 하에서 앙골라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평가절하 조치로 2014년 이후 상승 추세였던 미달러 대비 관자화(Kz) 환율은 2018년 초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을 계기로 2018년 말 309kz/달러까지 폭등함. 이와 같은 관자화 가치 하락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앙골라 정부는 필수품 가격상한제, 수입관세 인하 등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 물가상승률은 20.5%로 전년(29.8%) 대비 완화됨.

관자화 환율변동 추이

단위 : Kz/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환율	98.30	120.06	163.66	165.92	252.86
기말환율	102.86	135.32	165.90	165.92	308.61

* 자료: IFS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 상 수 지	-3,748	-10,273	-3,085	-633	2,153
경상수지/GDP	-2.6	-8.8	-3.1	-0.5	1.9
상 품 수 지	30,590	12,489	14,548	20,150	28,221
상 품 수 출	59,170	33,181	27,589	34,613	43,841
상 품 수 입	28,580	20,693	13,040	14,463	15,620
외 환 보 유 액	26,697	23,474	23,213	16,968	14,920
총 외 채	34,685	36,218	45,495	45,788	60,506
총외채잔액/GDP	23.8	31.2	45.0	36.2	52.8
D.S.R.	5.6	8.4	13.6	15.0	16.3

* 자료: IMF, EIU

국제유가 반등에 따른 수출실적 개선

- 원유 등 석유 부문은 앙골라 상품수출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음. 연평균 배럴당 국제유가가 2016년 40.76달러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에 따라 2017년 52.43달러 및 2018년 69.78달러로 반등하면서 상품수출액도 2017~18년 연속 증가하여 2018년 경상수지가 GDP대비 1.9% 흑자로 전환되는 등 대외거래 지표가 개선되는 추세임.

관자화 가치방어에 따른 외환보유액 축소

- 앙골라 중앙은행이 급속도로 하락하는 관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외환보유액을 외환시장에 투입한 결과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상승 추세(2017년 11.2%→2018년 16.1%)를 보이고 있음.

외채상환능력

관자화 가치 하락 및 추가 자금조달로 정부부채 증가

- 정부부채에서 외화표시 부채의 비중이 50%를 차지하는 가운데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에 따라 관자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2018년의 관자화표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또한, 과도한 정부부채 규모로 인해 2018년 재정지출의 52%가 채무상환에 사용되는 악순환이 발생됨.
 - 예산 부족분 조달 및 부채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2018년 중 3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하였으며, IMF로부터 37억 달러 규모의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을 지원받음에 따라 정부부채는 더욱 늘어남.
- *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 :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악화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IMF의 장기 구제금융 지원방식

정부부채 변동 추이

단위 : 백만Kz,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부부채	5,702,308	7,964,643	12,453,983	13,639,850	22,710,993
GDP 대비 비중	39.8	57.1	75.3	65.0	80.5

* 자료: IMF WEO

구조적취약성

석유 부문에 대한 경제의 과도한 의존

- 석유 부문은 GDP의 20%, 수출의 95%,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과 세계 원유 생산량 증감이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
- 기존 Dos Santos 정권 하에서 산업 다변화는 지지부진하였으며, 2017년 9월 취임한 Joao Lourenco 대통령이 추진 중인 경제개혁은 대내외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취약한 재정기반, 예산 부족 등의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

성장잠재력

원유, 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여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앙골라의 원유매장량은 2017년 말 95억 배럴로 아프리카 대륙 4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위 규모이며, 일일평균 원유생산량은 2017년 163.4만 배럴로 아프리카 대륙 2위 규모임. 또한 원유매장량 6.5억 배럴, 일일 최대 생산가능규모 23만 배럴의 Kaombo 신유전*이 개발완료 단계에 있어 원유생산능력 증대가 기대됨.

* 2018년 1단계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2019년 최대 생산능력을 달성하도록 개발 중임

- 앙골라는 또한 연간 8.1백만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세계 5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임. 2017년 앙골라 최대 Catoca 광산(연간 생산량의 80%)보다 큰 Luaxe 광산* 개발에 착수하며, 향후 다이아몬드 생산량이 배가될 전망이다.

* 매장량 3.5억 캐럿, 연간 생산가능 규모 8백만으로 추정됨

- 기존의 불투명하고 반시장적인 다이아몬드 매각방식(정치적 이해관계자들 앞 엮기 매각)에서 탈피하여, 2019년 최초로 다이아몬드 공개경매(public auction)을 진행하는 등 다이아몬드 가격이 회복될 전망이다.
- 아울러 앙골라는 80,000km²(대한민국 면적의 80%)에 달하는 광활한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질과 기후가 커피·목화·담배·야자수·감귤류·사탕수수 등의 재배에 적합하여 농업 부문의 성장잠재력이 큼.

정책성과

이전 정부의 정책성과 부진 및 신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감

- 앙골라는 세계은행의 기업경영여건(173위/190개국),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경쟁력지수(137위/140개국),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165위/180개국),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147위/189개국) 모두 열위한 수준으로, 이전 Dos Santos 행정부(1975~2017년)의 정책성과는 부진함.
- 2017년 9월 취임한 Joao Lourenco 대통령은 2018년 1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및 2018년 4월 '국가개발계획(2018-22년)'을 발표함.
- 앙골라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을 통해 재정 안정성(유가변동 영향 축소) 및 거시경제 안정화(물가상승률 관리, 환율 유연성 확대)를 도모하고, '국가개발계획(2018-22년)'을 통해 경제개혁(경제다변화*, 빈곤 퇴치, 교육·보건 강화, 인프라 확충, 반부패 등)을 추진할 예정임.
- * 비석유 부문(농업·제조업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석유 부문 의존도 감소
-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개혁은 37억 달러 규모의 IMF 확대금융 지원, 35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 등 앙골라 정부의 자원조달 다변화 및 조달비용 감소 등의 성과로 이어짐. 또한, IMF의 확대금융은 3년 간 6개월 단위의 심사를 거쳐 분할지급되는 바, 앙골라 정부가 개혁안을 계획대로 이행토록 하는 유인이 됨.
- * 유로본드 발행 : 2015년 1차 발행(15억 달러/9.5%/10년물), 2018년 2차 발행(2018년 5월 17.5억 달러/8.25%/10년물 및 12.5억 달러/9.375%/30년물 발행, 2018년 7월 5억 달러/9.1%/30년물 추가 발행)
- 현 정부의 경제개혁에 대한 대내외적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며, 2019년이 Lourenco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정치동향

집권여당 MPLA의 새로운 리더 Joao Lourenco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 집중

- MPLA의 대표 Dos Santos 대통령의 장기집권(1979~2017년)에 이어 2017년 9월 실시된 총선에서 MPLA가 61%의 득표율로 여당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대통령 간선제에 의해 MPLA의 후보 Joao Lourenco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임기(2017~22년)를 수행 중임.
- Lourenco 대통령은 Dos Santos 전 대통령의 자녀들을 국영 석유회사 Sonangol社 대표, 국부펀드 의장 등에서 해임하는 등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함.
- 집권여당인 MPLA이 국회의석의 2/3 이상(220석 중 150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1야당인 UNITA는 51석에 불과하여, 정책, 법안 등의 국회 통과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MPLA의 의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열악한 학교·병원·생활조건, 불투명한 국정운영·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증가는 정치적 불안요소로 존재함.

* MPLA 득표율 및 의석 수 추이 : 82%/191석('08년) → 72%/175석('12년) → 61%/150석('17년)

사회동향

Joao Lourenco 대통령의 반부패 개혁으로 사회적 갈등 완화

- Lourenco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선언하고, 국부펀드 의장이었던 Dos Santos 前 대통령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체포하는 등 前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을 포함한 전임 정부 고위직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부패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반부패 개혁 실행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 Lourenco 대통령 취임 이후 반정부 시위는 감소하는 모습임.
- 다만, 수도요금, 전기요금, 교통요금, 연료비 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 보조금 축소, 세금 인상 등의 경제적 부담 증가는 사회 불안요소로 존재함.

국제관계

원유 수출에 기반한 미국·중국과의 우호적인 국제관계

- 앙골라는 풍부한 원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석유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 중국의 주요한 아프리카 교역국임.
- 특히, 중국은 앙골라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있는 앙골라의 주요 재원조달처로, 양국의 상호 이해관계를 발판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외채상황태도

대외지급능력 개선 및 정부부채 감소 노력

- 앙골라 정부는 예산부족분 조달 및 부채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유로본드, IMF 구제금융 등으로 재원 조달을 다변화함. 아울러 2019년 7월 부가가치세 제도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 및 전력, 교통, 에너지 부문 보조금 삭감 등 정부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운용을 개선하고 정부부채를 축소해 나갈 계획임.
- 2018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대 앙골라 승인금액은 63.8억 달러(단기채무 0.8억 달러, 중장기 채무 63.0억 달러)임. 이중 9.6백만 달러(단기 8.8백만 달러 및 중장기 0.8백만 달러)가 연체 중이나, 이는 2017년 17.9백만 달러(단기 17.2백만 달러, 중장기 0.7백만 달러) 대비 감소한 금액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18.06)	6등급(2017.06)
Moody's	B3 (2018.04)	B2 (2017.10)
Fitch	B (2018.12)	B (2017.09)

Moody's는 신용등급 하향 조정, Fitch는 신용등급 유지

- Moody's는 외환보유고 축소에 따른 유동성 약화, 정부부채 과다를 우려하여 앙골라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였음. 반면, Fitch는 석유 부문의 회복 및 IMF의 자금지원 결정, 경제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종전 그대로 유지함.

- 앙골라는 2014년 하반기부터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쌍둥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 12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를 기점으로 유가가 반등함하면서 2017년 이후 경제·재정수지가 회복되는 추세임.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로 발생한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부 차입을 늘린 결과 2018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81% 수준으로 증가하고,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는 악순환이 발생됨.
- 2017년 9월 취임한 Joao Lourenco 대통령의 경제개혁, 반부패 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외적으로는 IMF 확대금융, 유로본드 발행 성공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정치·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음.